



3면

총선 민심 · 지역소멸 위기 극복방안 마련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음 3월 21일) 제349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내 유일 안전보호섬유 기술지원센터 '문 열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서 개소
안전보호제품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 시제품 제작 지원



지난 26일 익산에 위치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허전 익산부시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승엽 산업혁신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비롯해, 섬유 출연 연구기관 및 섬유 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호용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안전보호제품 기술지원센터는 연면적 2,717㎡(지상 3층/실내 4실, 연구실 3실, 전시실 등)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총 145억원을 투입해 2019년에 착공해 2021년 11월 기술지원센터가 준공돼 운영되고 있다.

중공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소식을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술지원센터 내 장비 구축이 완료돼 이날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

기술지원센터는 방검 성능, 화염 · 열 저항 평가시스템 등 7종의 안전보호용복합섬유 관련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융복합섬유 소재 · 공정, 신뢰성

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안전보호제품 기술지원센터는 연면적 2,717㎡(지상 3층/실내 4실, 연구실 3실, 전시실 등)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총 145억원을 투입해 2019년에 착공해 2021년 11월 기술지원센터가 준공돼 운영되고 있다.

중공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소식을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술지원센터 내 장비 구축이 완료돼 이날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

기술지원센터는 방검 성능, 화염 · 열 저항 평가시스템 등 7종의 안전보호용복합섬유 관련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융복합섬유 소재 · 공정, 신뢰성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 화이팅" 우범기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선정

전북자치도, 정량평가 부문 전국 86개 지표 중 85개 달성
정성평가 19개 중 대학·지자체 연계협력 등 2건 우수사례로
도·시군 간 적극 소통·협업으로 실적 향상 위해 노력해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평가 부문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전북자치도는 6대 국정목표, 105개 지표(정량 86, 정성 19)에 대해 평가 받았으며, 전국 평균 목표달성도 94.0% 대비 4.8%p, 전년 대비 1.2%p 높은 98.8%의 역대 최고 실적으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2024년(2023년 실적) 정량평가 부문에서 전체 86개 지표 중 85개 지표를 달성해 국정 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19개 지표 중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사람·책·콘텐츠가 만나는 도서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자산입니다.),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대학을 통한 현안 해소로 새로쓰는 전북특별자치도) 2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평가를 위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실적관리, 도와 시군의 합동 워크숍, 전문가 1:1 컨설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평가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했으며, 도와 시군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실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평가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함께 노력한 시군에 이를 배분해 내년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 평가로, 매년 행정안전부가 29개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 100여명이 공동

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한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시도 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및 합동평가단의 실적 검증을 거쳐 정량지표는 목표달성도 평가를, 정성지표는 우수사례 선정을 실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게 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는데, 도와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이번 성과를 새로운 전폭,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병원 교수진들, '주 1회 셋다운' 결의

주 1회, 외래 진료 · 수술 중단

전북대학교병원 교수들이 1주일째 하루씩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북대의대 교수협의회는 진료 유지를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의했다.

수련병원 교수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안전 보건확보에 따른 결정이라고 교수협의회는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휴진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교수협의회는 의대생들의 신속한 휴

학 처리와 현재 대학 본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증원 절차의 중단도 촉구했다.

교수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 지시에 맹종하는 대학본부의 탈법적 의대 증원 절차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대 교수회와 병원 교수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25th

JEONJU
전주국제영화제

JEONJU
전주국제영화제

Intl. Film Festival

2024.5.1-5.10

www.jeonjufest.kr